

고깃값 짙게 내렸는데 사과 3배 '깡충'...추석 차례상 물가 부담

추석 앞두고 20대 주요 성수품 가격 작년보다는 안정적
배추·무 등 농산물 전년比 하락...소·돼지고기도 하향세
사과·배 도매가 3배·2.5배↑...정부, 수급 안정 대책 총력

추석 연휴가 2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주요 성수품 가격이 고통가 여파에 크게 들쭉거리며 작년보다는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한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은 작년보다 소폭 저렴하게 유지되고 있는 반면 작황이 부진한 사과와 배 등 과일값이 3배 가까이 뛰면서 추석 차례상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1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2일)를 앞두고 주요 성수품 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기준 배추 1포기 소매가는 5422원으로 전년(9201원)보다 41.4% 하락했다.

무는 1kg에 2441원으로 전년(4264원)과 비교해 42.7% 낮았다.
양파는 1kg 2098원으로 전년(2606원)보다 19.8%, 간마늘은 1kg 8499원으로 전년(1만 3342원)보다 36.3%, 감자 1kg에 3390원으로 전년(4250원)보다 20.2% 각각 낮아졌다.
소고기도 1+등급 등심 100g 기준 1만971원으로 전년(1만2578원)보다 12.8%, 돼지고기는 삼겹살 100g 기준 6337원으로 전년(6598원)보다 3.9% 저렴하다. 닭고기는 1kg 6190원으로 전년(5601원)보다 10.5% 비싸지만, 계란은 한판(30구)에 6339원으로 전년(6598원)보다 3.9% 싸다.
지난해 추석 물가는 지속된 고통가 행진 속에 예년보다 이른 추석과 집중호우로 농산물 가격이 올라 차례상 비용이 7% 이상 뛰었

다. 올해는 주요 성수품 가격이 작년보다 낮게 유지되고, 상승 폭이 크지 않다.
다만, 추석 수요가 많은 사과와 배는 생산량 감소와 품질 저하 등으로 가격 변동 폭이 두드러진다.
차례상에 주로 오르는 사과 홍로는 10개 기준 2만8936원으로 전년(2만9737원)과 비슷하지만 도매가는 상품 10kg 기준 6만2049원으로 전년(2만1816원)보다 3배 가까이 비싸다. 배(원황)도 소매가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도매가는 상품 15kg 기준 4만6107원으로 전년(1만9340원) 약 2.5배 뛰었다.
농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이어진 저온 등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 누적과 병충해로 주요 과일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상품과 비율도 낮아 도매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고 파악했다.
한농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도 추석 성수품을 앞두고 사과와 배 생산량이 전년 대비 각각 20.8%, 20.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출하량이 줄고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과와 배뿐 아니라 감귤, 포도, 복

숭아 등 단감을 제외한 주요 과일 가격이 작년보다 비쌀 것으로 예측했다.
농식품부는 과일 가격이 추석 차례상 부담을 키우고 있지만 지난달 31일부터 시작한 농축산물 할인지원으로 사과와 배 소비자가격 변동 폭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aT가 조사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 50개 대형마트와 창고형 매장, 체인형 중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과·배 상품(上品) 기준 회원 할인과 정부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모두 받으면 사과는 3.2% 상승에 그쳤고, 배는 오히려 10.7%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추석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대 추석 성수품 가격을 작년보다 5% 이상 낮은 수준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추석 명절까지 주요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국민들의 체감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4만9000t의 성수품을 시장에 공급한다.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사과와 배는 각각 1만5000t과 1만3000t 등 농업 계약출하 물량

을 활용해 평시 대비 3배 이상 집중 공급하고, 도매시장 집중 출하와 할인지원을 확대한다.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함께 역대 최대인 670억원을 투입, 대대적인 할인도 지원한다. 농산물 할인쿠폰, 대형마트·농협 자체할인 등을 통해 전년 대비 가격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최대 40~60%(정부 지원 20~3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가격이 높은 배추와 무, 사과, 배, 양파 등 농산물은 온·오프라인 30~40% 할인한다. 배추 1포기당 정부 할인지원 20%에 판매처 자체 할인 10~20%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축산물은 한우와 돼지고기 등 구입단가가 높은 품목은 자조금과 대형마트 자체 할인을 연계해 최대 50%까지 할인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급안정 대책반을 구성해 품목별 공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며 "불안 요인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농축산물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변용일기자



G마켓·옥션, '한가위 빅세일' 오픈

G마켓은 역대급 혜택과 상품구색을 갖춘 한가위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1일부터 16일간 진행되는 이번 '한가위 빅세일'에서 G마켓과 옥션은 추석 선물세트부터 수입명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최대 70% 할인가에 판매한다. 지난해 행사 대비 13% 많은 역대 최대 인원인 2만6000여 셀러가 참여한다.
할인쿠폰은 무제한 지급된다. 최대 1만원까지 할인되는 '15% 쿠폰'을 전 고객 대상 필수 제한 없이 제공한다. 최대 5만원까지 할인되는 '20% 쿠폰'도 멤버십 회원은 매일 2장씩, 일반 회원은 1장씩 제공한다. 전체 행사 상품을 15% 이상 추가 할인가에 내놓는 셈이다.
오유나기자

"이젠 다이소 초저가 옷 산다"...고물가에 '3000원 티셔츠' 인기

지속해서 의류 카테고리 강화

소비자 체감 물가가 높아지며 '초저가 의류'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4%로 석 달 만에 다시 3%대로 오르는 등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물가 현상으로 소비 심리는 여전히 침체된 분위기다.
이에 SPA 브랜드 등 가성비 의류를 찾는 소비자가 지속 늘고있는 가운데 SPA 브랜드보다 저렴한, 초저가 의류에 대한 소비도 증가하는 모습이다.
7일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에 따르면 상반기 의류용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0% 신장했다.
다이소는 양말, 티셔츠, 와이셔츠 등 간단한 의류 용품을 판매하다 지난해 7월부터 스포츠웨어, 이지웨어, 홈웨어 등으로 패션 카테고리를 확장했다.
스포츠웨어는 스포츠레깅스와 브라톱, 남성 스포츠반바지와 메쉬반팔 등 운동할 때 착용하기 좋은 상품들로 구성됐고, 이지웨어는 카라 티셔츠, 트레이닝 바지 등 일상에서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상품들이다.
과자마로 이뤄진 홈웨어도 꾸준히 인기 있는 상품 카테고리 중 하나다.
의류 카테고리 구색을 갖추면서 올해 상반기 의류 상품 아이템 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80% 증가했다.
특히 올여름에는 SPA 브랜드가 시즌 상품

주력으로 선보이는 '냉감의류'를 다이소에서 출시해 화제를 모았다.
유니클로의 '에어리즘', 탑텐 '쿨에어', 스파오 '쿨테크' 등 냉감의류 상품에 해마다 시즌 히트템으로 경쟁을 펼치는데 여기에 다이소가 '초저가'를 내세워 가세한 것이다.
다이소의 냉감의류 '이지쿨'에서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은 '남성 메쉬 드로즈(3000원)'였고, 뒤를 이어 '남성용 냉감 런닝(3000원)', '이지쿨 메쉬 U넥 반팔 티셔츠(3000원)' 등이 인기 상품 반열에 올랐다.
이 이너웨어 3종을 모두 구매해도 1만원이 넘지 않는다.
'이지쿨' 인기에 힘입어 '이지쿨'이 포함된 다이소의 이너웨어 카테고리의 1~8월까지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0% 신장했다.
다이소는 지속해서 의류 카테고리를 강화하고, 냉감의류 '이지쿨'처럼 시즌성 의류 상품들



꾸준히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이슬비기자

중소기업 48% "추석 상여금, 계획 있다"...평균 얼마씩?

올해 추석 자금으로 평균 1억1560만원 필요해
27% "자금사정 곤란"...이유는 "판매·매출 부진"

중소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추석 상여금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평균 금액은 45만원 수준이었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8월2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중소기업 8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중소기업 추석 자금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48.3%로 조사됐다.
상여금 지급 비율은 전년 대비 11.0%p 증가했다. 상여금 지급 수준 또한 전년보다 증가해 정률 지급시 기본급의 50.0%에서 올해 53.7%로 3.7%p 늘었고, 정액 지급시 1인당 40만2000원에서 올해 44만7000원으로 11.2% 증가했다.
올해 추석 자금으로는 평균 1억156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필요자금 대비 부족자금은 평균 1280만원이었다. 전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1억5700만원이었던 필

요금액과 2200만원이었던 부족금액 모두 감소한 수치다.
부족한 추석자금 확보 방안으로는 '납품대금 조기회수'가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금융기관 차입'이 20.4%, '결제 연기'가 19.4%로 조사됐다.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응답도 25.9%로 조사됐다.
응답기업 39.4%는 추석 공휴일 이외 추가 휴무계획이 있다고 답했으며, 추가 휴무기간은 임시공휴일인 내달 2일과 개천절을 포함해 평균 1.5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해 추석에 비해 올 추석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는 응답은 '원활하다'는 응답보다 높게 조사됐다. 전체 응답기업의 26.9%가 추석 자금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했으며, 15.8%만이 원할하다고 응답했다. 전년 수준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57.4%를 차지했다.
자금사정이 곤란한 주요 원인으로는 '판

매·매출 부진'이 77.7%를 차지했다. '인건비 상승'과 '원·부자재가격 상승'도 각각 36.7%, 33.0%로 뒤를 이었다. '대금회수 지연'도 11.6%를 차지했다.
은행, 정책금융기관 등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이 지난해 추석 대비 원활하다는 응답은 16.1%로 곤란하다는 응답 14.0%보다 다소 높았으며, 전년 수준이라는 응답은 69.9%로 조사됐다.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시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응답자의 41.6%가 '높은 대출금리'를 꼽았다. 이외에도 '과도한 서류 제출요구', '대출한도 부족' 등이 각각 6.5%, 5.8%로 뒤를 이었다. 별다른 애로사항이 없다는 응답은 52.5%로 나타났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추석 자금수요 규모 감소는 적지 않은 중소기업이 긴축경영을 바탕으로 수출감소와 내수부진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며 "고금리·유가상승 등 어려움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내수진작과 수출 지원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11번가, 월간 십일절 최대 72% 할인가 선보여



11번가는 한가위를 앞두고 카테고리별 인기 추석 선물을 특가에 쏟아내는 '월간 십일절(11~15일)' 행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11번가는 고통가 상황에 이변 한가위 선물을 합리적으로 장만하려는 고객이 많을 것으로 보고, 월간 십일절의 대표 코너 '타입딜'을 통해 5일간 총 500여개의 특가 상품을 최대 72% 할인가에 선보인다.
집안일 부담을 줄여주거나 건강관리와 미용을 돕는 효도선물이 다양하다.
11일 오전 11시 '드림미 120 울트라 로보청

소기'를 시작으로 ▲11일 오후 11시 바다프렌드 레그넌 안마의자(리퍼) ▲12일 오후 3시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13일 오후 7시 LG프라엘 터마세라 ▲13일 오후 11시 LG 오트제컬렉션 세탁기-건조기 세트 ▲14일 오후 7시 자로우 포물러스 매스틱킴 등을 한정 수량 마련했다.
자녀나 조카 명절선물을 고민하는 고객을 위해 '플레이스테이션5'와 '애플워치SE 2'(11일 오후 12시) 등 검증된 인기 제품부터 가성비 헤드폰으로 입소문 난 '엔커 사운드코어 라이프 Q35 헤드폰(12일 오전 11시)' 등도 선보인다.
추석 황금연휴 기간을 대비한 호텔 숙박권(제주 신화월드·금호리조트·여수스라타리조트 등)도 다양하다.
뉴스